

비고츠키 아이디어는 한국의 교육을 구하고, 비고츠키 사상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협력을 하게 될까?

협력교육이 유행하면서 비고츠키 교육학 역시 함께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 문화역사주의라는 새로운 교육학사조를 형성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협력의 교육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고츠키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최근 대안적 교육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핀란드와 북구 교육의 기반이 비고츠키 교육학이고, 프레이리나 사토마나부 등도 비고츠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스런 관심과 조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력을 통한 발달을 추구하며 협력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발달 과정을 이룬다고 본다. 시장주의나 기존의 관점들이 경쟁을 인간 발달의 불가피한 원리로 한다면 비고츠키 교육학은 협력이 인간 발달의 중심 기제이자 조건임을 보여 준다. 인간의 고등정신기능 발달의 토대는 ‘사회적 관계’이며 문화역사적 발달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

나는 이러한 진보교육연구소에서 말하는 비고츠키 이론의 도그마화/이데올로기화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어떤 사회이론이 도그마화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은 그 이론이 본질적으로 도그마적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사회이론은 어딘가에 도그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씨앗을 품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조성’과 ‘권력성’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그 이론에 내재하고 있는

어떠한 네거티브한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표출할 때의 ‘정도의 문제’에 관여해서 발생하는 무엇인가이다.

그 이론이 그 이론이 갖고 있는 타당성과 적용범위를 넘어서서 과대평가 받는 것을 바라면 이론은 도그마화되고, 반면에 가설의 타당성과 적용범위를 과대평가 받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면 이론은 도그마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가설을 내밀 때 논자의 태도가 건방 지느냐 아니면 겸손 하느냐에 있다.

예컨대 비고츠키 교육학이 한국의 교육을 구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타당성이 없는 사례와 적용하지 않는 편이 나은 장면까지 무리하게 진출해서 말을 이랬다저랬다 해서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겸손한 논자가 말하는 이론은 자신의 이론이 타당성을 보이는 범위를 애당초 좁게 설정해서, 반증사례가 나오면 “앗”하고 머리를 숙이고 곧바로 물러난다(예컨대 비고츠키 이론만 갖고 현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있다/비고츠키 이론만 갖고 현대 학교에서 혁신운동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비즈니스의 예를 갖고서 말해보자면 거대자본, 단일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거대점포를 전개하는 홈플러스와 그 지역의 손님들만을 상대로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회국수집 정도의 차이이다.

양자의 차이는 ‘크기의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크기의 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질적인 변화에 관여한다.

‘큰 이론’은 그 이론이 ‘어디까지 넓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확대의 가능성

에 관심이 있고, ‘작은 이론’은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이 이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나은지’라는 절도의 확실함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페미니즘의 추락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그 지지자의 일부가 페미니즘이 적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삼라만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 이론’이라는 것을 욕망할 때였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어떠한 사회이론도 일단 ‘통일이론’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난 후에는 어떠한 노력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비고츠키 이론이 이데올로기화 되어가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